朝鮮日報
十八日夕刊八面
發行人 安在鴻
編輯人 [illegible]
印刷人 朴昌根
京城府堅志洞壹壹壹番地 發行所 朝鮮日報社
代表番號 光(二)三〇〇番

社說 頻發하는 橫領事件

[illegible]

智識群과 勞働群

智識群은 지금와서 社會의 尊敬을 바더왓섯다 이른바 適居無爲하고 오즉享樂에 沒頭하는 上層社會의 사람들에게 견주어 中產的인 智識群—現代의 所謂 인텔리層이 實로 資本的인 近代社會에 잇서 社會의 中樞로 되고 또 一般景仰의 標的이 되며 그들을 中心으로 社會의 文化的 統裁가 行進되고 잇는것은 先進國家에서 그러하고 또 後進的인 被隷屬的 民族의 사이에서도 그러한것이다 그러나 政治的 諸情勢가 智識群으로 坦平한 領導的 行進을 그 社會의 機構안에서 把握치 못하게 되고 冒險的인 突進的인 犧牲의 奉仕에는 한거름식 退避하여야하게 되며 그 形勢의 쏠리는바는 가장 無用한 敵稱爭奪的인 私爭醜態로만 되는 것이다 그리고 智識群의 惡用되는 暗黑的인 方面이 오즉 民衆의 信賴를 저버리고 그로부터 떠나게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인텔리」의 社會的 地位의 各斷的 變動이 非常치안흔바이오 그의 運動上에 作用되는 結果로 보아 매우 注目할 일이다 아즉 外지 大多數의 信望과 밋 그들의 指導의 任에 잇서야할 「인텔리」層의 早老的 傾向이 決코 社會的 好現象으로 될 일수 업는 것이다 이와 비기어 地方의 某郡에서 四十餘勞働人이 出獄하는 一同志의 배분에 나흘동안의 工賃을 내던저버리고 歸頭한번의 握手를 밧구겟다고한 純眞한 情熱의 發露는 차라리 一驚하겟다 近者 義勇誠忠은 그 本質과 함의 그 位置를 옮기게 되는 것이 注目되는 일이다 그러나 「인텔리」의 그 意氣와 誠忠이 아울러 賛歸하고 新興階級의 사람들은 아즉 全局面을 大觀하야 確乎한 政策을 把握함에 未達한 바 잇스니 이것은 朝鮮現下의 社會가 各方面을 病드는 來歷이다 朝鮮의 識者에게 檄하고 또 그 勞働階級에 告할 일이다

又復各地火災

武漢三鎭이 全滅狀態라고하

蔣、張間에 決定한 北方時局安定策

閻、馮兩氏를 速히 外遊케하고 山西에 公債發行許可

[illegible]

山西의 徐永昌氏 中央擁護態度明示

閻氏盲動하면 辭職하겟다고 蔣、張兩氏代表에

【北平十七日發電通】 太原來電에 依하면 中央代表 參謀次長 鮑敬息氏는 張學良代表 鮑文樾氏와 共히 十六日 太原着 十七日朝 山西省主席 徐永昌氏와 會議하얏는데 徐氏는 中央擁護의 意思를 明確히 表示하고 閻錫山氏가 萬若 野心을 가지고 盲動하면 余는 即時 辭職하야 決코 이에 參加치 아켓냐고 誓約하얏다

從하기로 되고 또한 舊西北軍의 龐炳勳氏는 中央擁護의 誠意를 披瀝하기 爲하야 今晩二時 着平하엿다 此로서 閻錫山氏의 山西入은 完全히 失敗한 模樣이다

保證하고 또한 相當한 旅費를 提供함으로 至急히 實行하여 달라고 希望하야 宋哲元氏는 右에 對하야 實現周旋을 快諾하얏다고

徐永昌氏就任 山西省主席에

【北平十八日發電通】 徐永昌氏는 十八日朝에 山西省主席으로 就任하엿는바 今後 中央에 絶對服

馮氏의 外遊를 協議

東北代表 宋哲元氏와

【北平十七日發電通】 萬福麟、戰鬭堯 兩氏는 張學良氏의 意思를 가지고 十七日午前九時 宋哲元氏를 訪問하고 오로지 馮玉祥氏 外遊問題에 關하야 長時間 協議하얏는데 確聞한바에 依하면 奉天側은 馮氏의 外遊에 對하야 生命의 安全을

蔣介石氏 來滬

宋大夫人葬儀參列次로

【上海十七日發電通】 中國側情報에 依하면 蔣介石氏는 孫文氏 夫人의 母 宋大夫人의 葬儀에 參列하기 爲하야 今明日中에 飛行機로 南昌에서 來滬하기로 決하엿는데 時間은 嚴秘에 附하고 잇다

【上海十七日發電通】 蔣介石氏는 今日 七時 飛行機로 南昌發 午後 當地 立花飛行場 着, 法租界의 宋子文氏 私邸에 入하얏다

王兆銘氏 脫粵

感情衝突로?

【廣東十七日發電通】 王精衛氏는 十五日 突然 身病을 稱하고 香港으로 歸還하엿다 右는 陳濟棠 古應芬氏等과 感情衝突의 結果라고 觀測된다

【香港十七日發電通】 廣東政府委員 汪精衛氏는 去十五日 當地에 到着하얏는데 流行性感冒에 걸녀 發熱 四十度의 重態이다

米國에 新紙幣를 注文

廣東中央銀行

【香港十七日發電通】 廣東中央銀行은 當地 某米國商人을 通하야 米國에 新紙幣 一億萬元의 印刷를 注文하엿다고 傳하고 잇다

寫眞說明

世界의 視線을 總集中하면서 去七月十二日에 巴里東京間 無着陸長距離飛行의 壯途에 登한 佛蘭西의 各飛行家 「두부리」「드레」 兩氏의 「드레、듀니욘」號는 途中 「니지뉴ー뎡스쿠」 附近에서 不幸히 不時着陸하야 第一回 壯擧에 失敗한 兩氏는 再次 目的을 達하고저 巴里에 歸還하기로 하고 七月廿二日에 露國飛行協會代表 「로사노푸」氏와 駐露佛蘭西大使館員等의 出迎을 受하면서 「니지뉴ー뎡스쿠」에서 莫斯科에 到着하엿다 寫眞은 「스타누스키」驛에 到着하얏다 寫眞은 「야로스라ー부스키」에서 左로 둘째부터 「드레」「두부리」 兩氏와 機關士 「메스맨」氏等이다

中國產業開發의 十年計劃案發表

◇……大工場設立、美田計劃等 國際勞働局立案

【壽府十七日發電通】 國際勞働局은 中國產業開發에 關하야 中國政府當局과 連絡을 取하야 具體計劃樹立을 急進하고 잇는바 十七日 中國十年計劃案을 發表하엿다

一、可耕地 三億「에이카ー」를 十年間에 美田으로 할것
二、運輸通信機關의 大擴張
三、開港의 建設、改良
四、十年間에 八百萬噸의 商船隊를 獲得하고 自主海運의 實現을 期할
五、大組織의 工場을 建設하고 一部는 官營 他는 官民合辦으로 할것 그래서 完成初에는 出力合計 二千萬馬力에 達하겟고 右建設에 使用材料로서 鋼鐵 千二百萬噸、石炭 二億噸의 購入을 必要로 할 豫定

그러고 勞働側은 前記의 發表에 依하면 中國政府當局도 右案에 同意를 與할 模樣인바 財源에 關하야는 아즉 發表되지 아녓다

秘密會議中에 鄧演達氏逮捕

【上海十八日發電通】 오래동안 潛伏消息이 絶斷되엿든 中國共產黨首領 鄧演達氏는 宋慶齡女史의 歸國을 機會로 政治的 新活動을 開始하려고 昨日午後三時에 英租界의 私家에서 鄧氏以下 男八女二 計十一名에 參集하야 秘密會議中 中國特別區探偵에게 逮捕되여 工部局에 送하엿는바 中國側은 今明日中에 引渡를 要求할 模樣이다

中村大尉事件 交涉開始

中國側緊急會議

【奉天十七日發電通】 林奉天總領事는 今日午後三時 遼寧省政府首席 臧式毅氏를 訪問하고 今年六月中旬에 中村大尉一行五名이 洮南「소론」地方에 視察旅行中 中國兵에게 殺害된 事件에 對하야 嚴重交涉을 開始하엿다

【奉天十七日發電通】 中村大尉虐殺事件에 對한 日本側의 態度는 今月二十五、六日頃 中國側의 回答을 待하야 最後의 決定을 할터

遼寧省內의 朝鮮人十二萬

歸化는 僅一千人

【奉天十七日發電報聯合】 朝鮮人問題로 紛糾가 起하는 此際 遼寧省當局은 其參考資料로서 至急省에 잇는 朝鮮人의 調查를 開始하야 最近 其大部分을 完了하얏다 右에 依한 즉 全省五十八縣中 朝鮮人의 居住치 안는 곳은 十七縣에 不過하며 朝鮮人居住의 四十一縣은 奉天、安東、營口、各城市를 合하야 遼寧省에 잇는 朝鮮人의 總數는 約十二萬人으로 其中 歸化한 者는 겨우 一千人을 不過하고 歸化하야 十年以上의 者는 四百名이다 此等朝鮮人의 大部分은 小作農으로 小當商人은 極小數이다 資產所有者는 거진 업다

長江時話 【2】

上海特派員 洪陽明

所謂 쏠번少年事件

—治外法權問題와 關聯하야—

最近 各新聞紙上에 實업시 날니우게된 쏠번少年事件이라고 하는것은 上海在住의 一英國不良少年의 身上에 떠러진 奇怪한 失踪事件이다 흔히 잇슬수 잇는 一旅行者의 크지도 안은 行方不明問題가 英國議會에 問題가 되고 마참내 世界의 問題外지 되엿데 對하야는 若干의 解說이 必要함으로 今日 外지의 情報를 綜合하야 보건댄 그 眞相은 이러하다

上海居住의 英國少年 찰ㆍ해이ㆍ쏠번(一九)은 英國義勇隊及海軍뽀이스카웃隊員으로서 多分의 冒險性과 不良性을 띈 少年으로 지난 六月一日 友人에게 託하야 兩親에게 片紙를 남기고 中國內地를 探險한다 하야 義勇隊制服 스카웃服及 피스톨을 携하고 上海를 徒步로 出發햇다 그날 밤 十時 그는 崑山驛에서 事를 기爲하야 鐵道沿線으로 거러가는中 夜間임으로 沿線警備憲兵에게 「누구냐?」고 搜查를 밧게되자 性來 不良性을 띈 그는 言爭끗헤 드듸어 서로 銃질을 하게되여 쏠少年은 두 兵士를 負傷케 하엿다 고하는데 이는 中國側의 報道이다 엇더한 理由이든 間에 쏠少年은 翌日 憲兵에게 逮捕되여 鐵路로 崑山에서 蘇州로 押送되엿는데 가진것은 다 빼앗기고 스카웃服을 입은대로 顔面과 손에 多數의 傷痕을 남긴것을 蘇州의 驛夫及 附近人이 보앗다는것이다 이리하야 結局 쏠少年은 蘇州

陸軍監獄

에 監禁되엿다는 說이 傳播되자 上海英國副領事 스코트氏는 蘇州監獄으로 가서 調查를 하얏스나 그 責任者는 事實을 全然否定함으로 英國副領事의 調查는 失敗하얏다 이러한지 約三週間後 工部局에서 다시 二人의 外人探偵을 蘇州에 보내여 調查케하얏스나 이 二人의 探偵은 監獄側의 峻烈한 脅迫을 밧고 調查도 못한채 上海로 逃亡하여 도라왓다 이러한 사이에 쏠少年은 코와 귀를 버혓다는 等 中國式 殘忍한 拷問을 견 거 慘酷히 죽엇다는 等의 傳言이 돌고 이러할수록 英國側의 搜索은 猛烈하게 되자 中國側은 證據를

泯滅키爲

하야 蘇州의 驛夫와 쏠少年이 物件을 삿다는 蘇州驛附近의 商人들의 입을 封하고 蘇州에 두는 것을 危險히 生覺하야 南京獅子山監獄으로 護送햇다는 말이 돌게되엿다 이리하야 쏠少年은 失踪以來 이에 二個月을 經過하고 最初는 官憲의 손으로 取調하고 잇는 것처럼 되어 이든 中國側도 責任을 白키爲하야 國民政府의 正式言明으로 逮捕한 事實업다고 布告하게 되자 全然이 少年의 所在發見은 絶望視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奇怪한 일은 六月三日의 中國紙는 鐵道沿線에서 警備兵이 殊常한 人形을 認하야 合擊한 것 이 翌朝에 잡고보니 『씨、스코트로』라는 靈人이엇다는 報道를 하고 負傷當한 軍警도 逮捕한 外人이 『씨ー 스카우트 퓨룸』이라고 하얏든 끗헤 가첫섯다고 先日에 말한 일이 잇슴에 不拘하고 國民政府의 言明 以後는 絶對 입을 封하고 또 全然 그 것을

不認하는

것이라 한다 이러한 모든 事情을 모를 理가 업는 英國側의 態度는 나날이 硬化되여 中國에의 抗議 本國政府에의 請願 本國輿論의 喚起 等에 依 大馬力을 내여 活動하는 一方 上海在留의 英國人은 말할것도 업거니와 諸外國居留民이 人權擁護問題라고 一齊響應하야 數次 各國居留民代表會議를 열어 國際委員會를 組織하야서 對千名의 署名을 밧어 英國政府에 電請하는 等의 活動을 하드니 及其也는 드데여 英國議會에서 問題化하고 따라서 本國政府의 電命으로 렘프슨公使의 南京行에 까지 이르게 하야 治外法權交涉을 目前에 마준 中國의 法治能力 따라서 對外信用에 적지 안은 暗影을 더지게되고 그 解決如何는 各國艦視의 對象이 되게될 것이니 이것이 所謂 쏠번少年事件의 全部이다

自由黨系의 調停으로 英印關係若干好轉

圓卓會議參加交涉은 尙不能 印度政廳은 交涉絶望을 否認

【「시믈라」十六日發聯合】 全印度國民會議執行委員會의 第二次圓卓會議 「보이콧트」 決議에 依하야 印度의 和平은 再次 重大脅威를 受할에 至하엿는바 印度政廳이 昨日 「시무라」에서 「삐ー•데지•바하들•사ー불」氏 「자칼」氏에게 電報를 하야 調停을 依賴한 結果 兩氏는 再次 印度政廳과 國民會議派間에 잇서서의 調停의 一役을 맛게되야 今日에 至하야 事態는 相當히 好轉함에 至하엿다 印度政廳當局에서 는 國民會議派를 圓卓會議에 參加케 하기 爲하야의 交涉은 아즉 決斷코 絶望은 아니라고 생각을 가지고 잇는바 國民會議派의 「보이콧트」를 決議함과 共히 印度各方面의 主要人物 特히 圓卓會議에 出席할 各派代表의 「안듸」氏를 訪問함이 잇 치지 안는 反面에 國民會議執行委員會도 全部 今年度國民會議大會議長 「베라바이•빠ー 길」氏에 委任하고 必要한 境遇에는 最後의 瞬間에 잇서서 應急의 措置를 取하도록 하고 잇다 國民會議派의 圓卓會議參加는 아즉 可能하다 고볼수 업는 바 以上의 諸事實은 아즉 交涉이 絶望치 안타 고하는 政廳當局의 見解가 맛는다 고함을 보히 고잇다

『싼듸ー』氏의 會議不參理由

『싼듸ー』『어ー윈』協定違反과 地租를 强制徵收한 까닭

【「시무라」(印度)發聯合】 印度國民會議派가 再次 英印圓卓會議不參加를 決定함에 至한 直接의 原因으로 된 『간듸』氏와 印度總督 其他 印度政廳當局과의 間의 往復書信이 今日 發表되엿다 該書信은 全部數千語에 達한 것으로 『간듸』氏는 其中에 잇서서 政廳側이 『간듸』 『어ー윈』 協定에 違反한 事實 特히 地租의 强制徵收를 行한 事實을 指摘하고 잇서 政廳側은 强硬히 此를 否定하고 잇다 此에 對하야 『간듸』氏는 다시 금 自己의 抗議에 對한 政廳側의 回答은 明確히 『간듸』氏가 渡英치 아는 것을 指示한 것이라 하야 英印圓卓會議에의 不參加를 明言하고 잇다 그래서 本件에 關한 印度政廳側의 態度는 普通法式은 正規의 行政處理를 停止함에 이르는 것과 가튼 協定에 同意할수 는업 다고 하는 立場을 보히 고잇다

인바 中國側이 調查한 後 中國兵의 暴殺事實을 認하고 日本交涉에 應할 境遇에는 中國兵의 嚴重處罰、賠償金、今後의 保證等을 要求하고 事件을 圓滿히 解決할려 인바 萬若 事實解答의 不誠意한 態度를 取할 境遇에는 日本側은 即時로 證據를 擧하야 或은 死體의 日、中共同調查又는 日本의 單獨調查等의 方法으로 斷乎한 處置에 出할 方針이다

恩給率에는 軍部側이 讓步

政府軍部의 折衝

【東京十七日發電報聯合】 恩給法改正에 關한 意見의 相違點에 關하야 軍部側은 齊見一致를 보앗슴으로 杉山、小磯次官은 十七日 午後一時半부터 首相官邸에서 川崎翰長을 訪하고 兩次官으로부터 恩給率에 對하야는 政府案을 認定함으로 그代에

一、士官恩給年限 十六年을 十五年에 修正할
二、准士官恩給年限을 十一年으로 할
三、兵役義務者救護에 提出하고 잇는 扶助料 增加、公傷、傷者一時資金 增加、同傷病軍金 增加、軍部國庫納金을 同傷病資金에 編入할 것

을 認하여 달나고 述하고 協議하엿는바 政府는 行政整理準備委員會에 諮問할 때까지 待하야 달라고 述하고 別室에서 同準備委員會를 開하고 井上藏相以下 出席下에 川崎、武內兩氏로부터 軍部와의 交涉顚末을 報告協議한 結果 第一을 認定치 못하고 第二는 認定하여야 조타 第三은 더욱 調查研究의 要잇다고 決하고 川崎翰長은 更히 兩次官과 會見하고 다만 『即答할수 업다』 고 述하고 何等의 一致點을 보지 못하고 同五時에 兩次官은 辭去하엿다

政治的折衝에 依하야 最終幕에 到達乎

◇……恩給法改正問題

【東京十八日發電通】 恩給法改正에 關한 十七日의 政府軍部의 折衝에 있어는 아즉 完全한 意見의 一致를 보지 못하고 散會하엿슴으로 南陸軍大臣은 十八日午前 安保海軍大臣과 함께 九時에 官邸로 若槻首相을 訪問하야 十時부터 開會하는 行財政審議會에서 一擧에 解決을 圖하야 午前 十時부터 開會하는 行財政審議會에서 一擧에 解決을 得하라고 하는 것 과가 다시 同問題도 드듸여 最後의 解決에 到達하라고 하고 잇다

容認하야 讓步한 事는 甚히 遺憾이라하야 與黨側에서는 不滿의 意를 表하고 잇다 따라서 審議會에서는 此의 反映하야 與黨出身의 同委員等은 相當히 强硬論을 提唱할 模樣인바 各委員은 會議開會前에 井上藏相 其他의 政府當局으로부터 一次政府와 軍部와의 折衝內容을 聽取한 後에 審議를 할것인가 안인가에 對하야 考慮하기로 되엿다

軍部에의 屈服에 不滿

黨出身委員의 態度

【東京十八日發電報聯合】 十八日의 臨時行財政審議會에 正式諮問되기로 된 恩給法改正案에 對하야 政府는 當初의 準備委員會原案에 對하야 相當히 軍部의 要求를

政治的解決을 企圖

三相間에

【東京十七日發電通】 南陸相은 十八日午前八時半에 安保海相을 訪問하고 同九時에 相携하야 首相官邸로 若槻首相을 訪問하고 三相間에 恩給法問題의 政治的解決을 圖하기로 되엿다

野黨의 支持어더 減俸其他斷行乎

英國의 赤字補塡

【倫敦十七日發電通】 英國의 赤字補塡案은 前週의 閣員經濟委員會에서 그 大綱을 內定하고 今週初에 三黨代表會議를 開하고 在野黨의 支持를 得하려고 잇는바 「데리ー메일」紙에 依하면 그 內容은 左와 如히 豫想된다

一、道路工業을 中止하고 年額 六百萬磅節約
二、萬國放送局에 對한 料金收入 配定年額을 四十七萬五千磅만 減額할
三、議員、內閣各員의 俸給減額
四、官吏減俸、學校敎員의 俸給 一割減
五、固定利子附公債類로부터 受하는 定期收入에 對하야 새로히 一分의 特別稅를 賦課할
六、失業者手當을 一週二志식 減할

恐慌程度는 아니다

英藏相談

【倫敦十七日發電通】 「스노ー덴」 藏相은 말하되 英國의 財政은 極히 危하야 政府는 近近 對策을 라고하고 잇다 그런데 ……고하는 것은 絶對로 업……은 鬪爭한 決心的 案이……英國이 破産하라 하고……나 참으로 우수운 일이

日貨不當抑留 王氏에 正式抗議

◇……近近公文書로

【上海十七日發電通】 日貨不當抑留에 關하야 日本總領事館으로부터 上海張群市長에게 再三抗議하엿스나 效果를 得지 못하야 드듸여 重光公使는 王正廷、宋子文、張群三氏에게 口頭로 여러번 抗議를 하엿스나 效果를 나타내지 못하는 外닭에 近近正式으로 公文書로써 抗議하기로 決定하얏다

貯水池도 危險

食糧은 上海에서

【漢口十七日發電通】 十七日朝十時에 現在 水標는 五十三呎三時으로되여 가장 念慮되여 잇는 貯水池는 十五日 現在에 겨우 一呎의 餘裕가 잇섯슴으로 其後의 增水에 依하야 何時에 斷水될는지도 觀測키 難함으로 當局은 萬一의 時는 長江의 水를 吸하야 明礬으로 沈澱하야 飮用水로 하기로 手配中이다 食糧米는 上海에서 供給을 受하려고 目下 交涉中이다

安徽省水害 死者無疑數千

【上海十七日發電報聯合】 蕪湖駐劄의 柴崎領事는 昨日 同地의 水害狀況에 對하야 如히 발하엿다 同地는 長江本流及支流의 氾濫하야 今日 外지 約二十日이 되여잇다 浸水面積은 非常히 廣汎하야 避難民은 蕪湖에 흔곳에 殺到하고 잇스며 領事館도 浸水하야 二階에서 執務를 보고 잇다 中國側의 調查로는 安徽省 五十縣에 미치어 損害額은 數百萬元으로 正確한 數는 判明치 못하나 死者만으로 數千名에 達하엿다 만일 減水가 今秋의 收穫은 全滅일 것

有吉宮崎縣知事를 告發

政友會서

【東京十七日發電通】 政友會 綱紀肅正委員會는 十七日 協議한 結果 宮崎縣有吉知事의 選擧干涉事件은 民政黨三浦派의 際明한 것과 가튼 것으로 宮崎支部에서 告發하엿는바 近近特派하야 調查部는 近近特派하기로 及府縣選擧에는 選擧監視隊를 各府縣에 特派하기로 하엿다

文理大와 高師 廢學에 絶對反對

目的貫徹에 邁進

【東京十七日發電報聯合】 東京文理大學及高師의 廢學反對實行委員會는 十六日午後 學生約一千餘名이 續續 參集하야 經過의 報告를 行한 後 師範이 가서 起立하야 廢止에 絶對反對하고 師範統確立을 爲하야 어듸까지 結하야 그 貫徹을 期하는 宣誓를 宣誓함

人事消息

▲君島彬氏(徽新學校長) 渡米 安息中이든바 來二十一日 午前十時 京城驛着列車로

八面鋒

○ 會議、陳情、整理、赤字 等으로 白堊館의 ……로、…… 模樣

○ 그러나 午鐘만 생치면 달려라, 골프場에, 野球場에, 마장에, 料理店에, 카페에

○ 愛人의 마음을 돌이고자 自殺한 新女性이 잇다 自殺이라 할가

○ 仁川稅關長은 自動車로, 警校四人과 가티 ……것은 不意의 橫死라 할 ……

朝鮮의水産業 (三)

北海道帝大 劉泰勳

三、養殖業

朝鮮在來의養殖業은 全羅南道光陽、莞島와慶尙南道河東等地의海苔養殖이主要한것이엇스며 그起源이 數世紀의歷史를가지고잇스나 詳細한參考文獻이遺存치아니하다

朝鮮의養殖業은近來에相當히進步되여잇다 咸南의鮭鱒孵化放流와慶南衛陽의鯉養殖及全南康津의牡蠣養殖은가장有名한것이며 其他忠北을除한各道에는鯉、海苔、牡蠣、昆布、貝類等及其他의養殖試驗이勃興하고잇다

朝鮮에잇서서 水溫、海流及其他浮游生物의關係로因하야 가장希望과普及性을가진것은海苔와牡蠣의養殖이라고생각한다

(가)海苔의養殖은全南、慶南을根據로하고 乾海苔의原料品으로重要한價値를가지고잇다 乾海苔는日本、滿洲에까지輸出되며 昭和三年에는그生産額이二百九十萬圓에達하엿다 海苔의重要한生産地는全南의莞島、光陽、長興、高興、康津海南、麗水、珍島와慶南의河東이다

(나)牡蠣養殖業은咸鏡、全南、慶南에實施하고잇다 咸北永興灣과咸南黃魚浦의水面下養殖 全南海倉灣과蟾津江口의干潟地利用、慶南加德灣과辰槪灣附近의集約的養殖가큰것이가장進步的이다

以上各種養殖業에對하야 昭和三年度에는 從業人員이約六萬七千八、養殖水面이約二千十八萬坪、收穫高가約八十四萬六千貫價額三百三十二萬八千餘圓에達하고 近來漸漸發達되고잇는것은참으로깃분現象이다

要컨대朝鮮에는干潟、沼池、淺海及其他堤堰等養殖에好適한水面이廣大하며以後로水源의涵養河川의修築、山野及干潟地의開發灌漑用貯水池의增設等으로因하야 養殖業에利用할場所가頗히無限的이니 朝鮮의養殖業은참으로前途가洋洋한것이다

四、製造業

朝鮮在來의 製造業은自然的地方的인만치 製品의種類가大槪制限的이엿섯다 自來의製造品이라면 明太 鯖 鰯 烏賊 鮟鱇 鮫 鰮 海苔 石花菜等의素乾品 石首魚 鯖魚의鹽乾品 石首魚 太刀魚 鰊 鰆 鯖 明太의鹽藏品 鰕의鹽醃品等이主要物이엿섯다

그러나現在에는 科學的應用으로因하야在來品의改善 鮑罐詰 鰮油 鰮搾粕 製造 鹽鯖 明卵及水産肥料等製品의 支那와香港……移出額은相當한巨額에達하며 其中에도 [illegible]의乾鰕 平北의白魚鰒 平南忠南의 石首魚 慶南全南의乾海苔 江原의開明太 咸南의鱈 明卵及明太肝油 咸北의乳昆布은東洋的으로 著名한것이다

그와갓치 朝鮮에는林業株式會社支店以外에 十數個의水産關係會社가設立되고 目下製造와販路開拓의 機運을促進하고잇스나 沿岸在來의小漁民은經濟的으로好遇를밧지못하야 日日漁民의淺漁者가 생기고잇다 우리는技術的으로 水産界를向上식힘은勿論이어니와 무엇보다도먼저 小漁民의經濟條件을愼重히考慮하고 그들에게技術的知識을注入하야 偉大한水産業의平和的建設과 生活的保全이며 技術的向上을圖謀하여야할것이다

昭和二年度의 漁業從業人口가四萬九千六百六十四人 漁獲高가 四千四百八十八萬圓에達하고 一種十萬圓以上의産額을가진것이 約四十七種에達한다 그뿐아니라 今後漁撈와養殖의發達로因하야 原料가豊富하며 隣邦各國에大市場을獲得할希望이잇는것만치 朝鮮水産製造業의 資本的發達은漸漸膨大할것이다

五、移出

(1)販賣機關

朝鮮에는 在來로부터 水産物仲介業者가 存在하야 水産物以外의 一般貨物을 取扱하여왓다 이것은 貨物集散處各地에 介在하야 漁業者와 荷主의委託을受하야 仲買人과小賣商에게魚類를 販賣하는一面漁業者에게資金을供給하고 買主와荷主를宿泊케하야 그仲介取引을便케하며 또荷主의貨物을保管하는機關이다 이機關은古來로一種의株式에依하야 成立된것인고로 새로히營業을開始하려면賣買 讓渡에依하야그株를購得함을常例로하며 各各一定한勢力範圍를 所有하야他人의塚域을侵犯하지못하고 客主는荷主의指定價格과 各地의時價를參酌하야 仲買人과小賣人으로더부러 折衝한結果그價格을定하게된다

大正三年에至하야 總督府令第百三十六號로써 市場規則을發布하야 委託을바더 競賣로써販賣하는場所를魚市場으로하고그經營과營業에許可를要케되엿다 昭和四年末調査에依하면 이許可를受한者가私人九 公共團體二十 會社五十一 組合一에達한다 이販路에는競賣 算賣 入札等의方法으로委託者로부터手數料로 鮮魚는賣額의一割以上一割二分 鹽乾魚는三分以上七分을徵收하고 또一割五分內外를 仲買人에게步戾으로交付한다 昭和三年의取扱數量을보면八百八十八萬五千五百七十六貫 價額八百五萬一千百五十一圓을示하고잇다

木船의沈沒로 비萬餘柄沈水

김포양동면압에서생긴일

【金浦】 지난십칠일새벽세시경에 한강하류인 김포군양동면(金浦郡陽東面)양천뒤경에서 목선한척이 침몰되어 다행이인명의관계는 업섯스나 그배에실엇든물건은 전부침수되여 손해가약오륙백원에 달한다는데 전긔목선은 김포군고촌면신곡리(金浦郡高村面新谷里)에잇는 농사개량협동판매조합(農事改良協同販賣組合)에서 일반조합원들이만든집고경이비는일반여분을경성방면으로 납부하기위하야 그전날저녁에 고촌면전호리(高村面□湖里)에서떠나풍산방면으로향하야 올나가다가 전긔장소에이르러 배가찍어 물에부되치여 파손되자 그와가티침몰된것이라한다

駐在所首席巡査 姙娠婦를亂打致傷

제안해의역성을들어한일 永興署員의大失態

【永興】 영흥경찰서진평주재소수석북촌모(永興警察署鎭坪駐在所首席北村某)는 지난십사일오후세시경에 진평면 진흥장(鎭興場)진상원처(陳尙元妻)엄신칠개월이나된김월녀(金月女)(二五)를 무수난타하야 현장에서 졸도까지하게하얏다는데이제그내막을 조사한바에의하면 전긔김씨가 주재소 우물(井)에나가서물을푸고잇든중 전긔 북촌의 처가나와 말하기를 당신네가우물수선할때 부역은아니하고 물은웨떠가느냐하기에김씨말이부역을 내라하면 내엿슬것을하등의말이업섯슴으로아니내엿다고하니 북촌은마당에서 닭이(鷄)집을손질하다가와서 『이나쁜년발이무슨말이냐』하면서 곤봉을들어무수히따리다가그도또부족하엿든지 마자 넘어진그에게다가 두부로부터 발까지 물을작고퍼부어 그와가티 졸도까지하게하얏슴으로 피해자측에서는 방금고소준비중이며 일반인사들의 비난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는 경찰로 순양한인민에게 그와가튼폭행을 하얏다고 여론이 물끌틋하며 비난성이 자자하기로 긔자는가해자인 북촌과 의사윤병걸씨를방문하야 사건진상을 조사한결과그들에게문답은다음에 나와갓다

문 요몃칠전에물길러나온녀자를때린일이잇느냐

답 미안하다만은그와가튼일이잇섯다

문 무슨일로부녀에게매질을하엿느냐

답 당신뭇는말을나는대답못하겟다 상부에다 모든사건을보고하얏슴으로상부의명령만바라고잇스니만약상부에서사직하고가라하면사직하고갈사람이다

◇醫士尹明燮氏談

문 당신은여긔주재소수석한테매마진녀자를진찰하야보앗는가

답 예보앗슴니다

문 그녀자가임신중인데복부에아해가락태될념려나잇지안슴니까

답 자초에는 락태될념려가잇섯다그런거슬백방으로치료하야안래는하얏다만은장래엇지될는지예언하기는어렵다

문 귀하가피해자측에서 진단하야달라는것을 못하야 주겟다고한일이잇는가

답 천만의외의말이다 내가무슨일로진단을안이해주겟다 고하얏겟느냐

문 상처난뒤주일간이나치료하여야겟든가

답 상처는하여도약이주일이상을치료를하리라고생각한다

線路에자든룸펜 汽車에치여죽어

가련한아비룸펜의정상 大邱驛構內의慘事

【大邱】 살을에이는듯한겨울의 풍설보다는 집업는사람에게잇서 자연의 혜택 같은여름이도라옴을따라 집업시 표랑하는룸펜들은 어느곳에서이나 로숙하고잇다 이로인하야 곳곳에서이러나는희비극을 볼수잇는데 이날도 역시 한사람의 룸펜이고요한잠나라로부터 영영 천국의길을떠난비참한 사건이 대구역구내에서 생겻다 지난십칠일오전륙시경동역화물구내에서는원숭일찌는듯한더위와 싸우며 먹을것을구하려고 헤매이든 피곤한몸을 쉬이려고 선로에서자고 잇든부외달성군달서면비산동(達城郡達西面飛山洞)에 호적을둔김경태(金京太)의 장남을생(乙生)(二六)는헤마츈인부들이밀고오는 화물차에 치여서 머리가갈려무참히현장에서즉사하엿는데그의 겨레서자든그아비 김경태는 아들의 최후의비명에 놀나속하게 선로밋층로 몸을피하야 겨우죽엄을면하엿다 그들은 여자업는 경제몰락에 쫏겨서 몸하나용납할집도업시 다만 부자가서로의지하여지나다가 결국 의외에무참하게도 아들마저 일케된그아비의무른짓는참경이야말로참아 볼수업나고한다

迎日各津에서 『메르치』大豐獲

活氣띄운各漁村

【浦項】 경북영일(慶北迎日)군지방에는월여장림(長霖)으로고기가잡히지안하야 일반세어민(細漁民)들은 비상한 곤난을당하여오든바 곡강、청하、송라(曲江、淸河、松羅)해안일대의『메르치』잡는후리망(揮羅網)은 십여일전부터대풍획(豐獲)을보게되여 각어촌에는호경긔(好景氣)를보게되엿다는데 각어업조합(漁組)구내의어획고(漁獲高)는다음과갓다한다

曲江漁組區內	一五、〇〇〇貫	二三、〇〇〇圓
淸河漁組區內	八、〇〇〇貫	一〇、〇〇〇圓
松羅漁組區內	四、〇〇〇貫	三、〇〇〇圓

通川眞瓜全滅

쏫필때장마로

【通川】 강원도통천군일대의 금년『참외』농사는 전멸상태라는바 그원인은쏫필그때에 오랫동안의 장마로인하야 쏫이활작 퍼지못하야 그러는바 이로인해서밧은바 손해는 딸길여정보에 삼천원가량이나되리라한다

兼二浦市內에 淸潔못해市民怨聲

락찰한자가구실을지어

【兼二浦】 겸이포시내 청결은 읍당국(邑當局)에 경영으로 매년읍에서 청부업자에게락찰케하여 그것으로 시내청결일체를 하게하는데 금년은이백오원이라는 금액으로 시내명치정(明治町)라오진(羅午鎭)에게 락찰되여 지난유월일일부터시행하엿는바 지금와서 전긔라오진은 판로가 가장만흔중국인이 금번돌발사건으로 자긔나라에도라가 버렷슴으로 판로가업슴과 금번홍수로인하여 적재하엿든 인분뇨(人糞尿)가 비에다떠나려가 손해보앗다는 리유로 읍당국에 계약을 해약(解約)하여달라하는 동시에 청결에힘을쓰지안음으로 인하야 집집에변소마다 인분뇨는 가득차고넘는데 다장마비로인하야 각하수구까지 흘러나리게되여 그불결함은말할수업게 되엿스며 청결통마다 버린쓰레기는 청결통이차고 그우에까지 쌓히고쌓혀쓰레기산을만들러노아 참아 단닐수업게까지 되엿슴으로 일반시민은 전긔청부업자의 성의업슴을비난하는동시에 읍당국의 감독불충분을비난하기를마지안는다한다

法律顧問

【問】 甲이乙한테家屋二軒을抵當하고千圓을借用하얏스나期限內의支拂치못하야一軒에千圓月賦로丙에게放賣하얏는데家屋文券還付를請하니丙의支拂濟하거든還付하겟다하오니該期限內라도還受할權利가有無하온지不知하오니下敎하야주시기仰望합니다 (欲知生)白

【答】 所有權登記濟는債權者에게는不必要한것임으로返還請求할수잇소 (李仁辯護士)

본로으橫縱 —群山의各般現狀 (四)

霄壤之差로施設된 寒心할만한教育界

中學設立이무엇보다急務

群山支局 金英基

文盲은無智를나코 無智는敗退를낫는것이다——各方面으로總敗退를當한現

實 朝鮮에잇서서무엇보다도가장必要한것이 敎育일것은물을것업는事實이다 따라서湧出하는新思潮와함께各地에서 일어나는敎育熱은 맛치목말은者물을찾듯시 智的方面으로그무엇을어드라고 無智에속하라는文盲의물이들이 이리몰니고저리몰리여 배울곳을찾게되엿다 그럼으로이에相應하야 官公私立의各學校가雨後竹筍의 勢로이러나게되엿다 그러나敎育機關의不足과施設의不全으로(中等)敎育의差別的缺陷을 언제나늣기지안코는마지안엇든것이다——全朝鮮的으로 有數한都市!大群山에施設된 敎育機關은엇떠한가? 모든것이그다지神奇치못한群山에서 唯獨敎育機關만이充實할理는萬無이엿다——朝鮮人의敎育機關으로는 두個의普通學校와三個의

私 立學校及夜學校가잇슬뿐이요日本人들의그것은中學 高等女學 高等小學 家政 尋常小學 幼稚園等의各種施設이各가지로施設되여잇서 朝日人의人口比例로보면 그設備의差異가 比較도할수업스리만콤天壤의判이잇다 이에群山府內에施設된各學校와生徒數를보면

●日本人側學校	生徒數
群山中學校	三四六
高等女學校	二五四
商業補習學校	六〇
家庭學校	五〇
尋常小學校	一、四七七
群山幼稚園	一五三

朝鮮人側學校	生徒數
第一公立普通學校	九九七
第二公立普通學校	一四七
永明學校	二一八
메리보든女學校	一一二
青年夜學校	五三
日新夜學學校	一七〇
新興夜學校	九〇
永信幼稚園	三二

以上과如히日本人들의그것은學校總數六校에 生徒總數二二九六으로 男女各中學과實業敎育機關外지施

設 되여잇스며內容이또한充實한터이다 그러나朝鮮人의것은二個所의夜學外지合하야學校總數八校에 生徒總數二、三四〇밧게아니되는中에『메리보든』女學校高等科生三十六名을除한外에는 全部가初等敎育을밧는者인데 그나마敎育機關의不足으로數千의學齡兒童을收容할곳이업스니 그들의將來를엇떠케處置할것인가? 그리고中學機關이업는까닭으로普通學校等의初等敎育을맛친者로도 一部有産階級의子弟이아니면 더다시한거름도 學路를밟을길이업게되엿스니 켜아모리鵬程萬里의大意를가지고도 暗黑의구렁에서굴게되며 켜아모리聰明智略이過人하야偉人傑士의 素質이잇는者도 紅塵煤煙의勞働市場에서헤매임을볼때 群山의將來를爲하야엇지

嘆 치안흘바이랴! 그럼으로群山에잇서서는 中等敎育機關의缺陷이무엇보다도遺憾이라하겟다! 回想컨대 群山에朝鮮人本位의中等敎育機關이업섯든것은아니다 一時儀容堂堂한群山農業學校가잇섯스나日本人들의反動으로 그農校를裡里로옴기여노코 그러、집에다가그들의本位인今日의群山中學을만들어노왓다한다 이케그러케까지된다로——맨쓰틀드르면우슬기도하고 분하기도 착이업다『農校는他處로 옴기고그대신으로群山에는日鮮人共學의大中學을設立하면 日本人으로보와는업든中學이생기고 朝鮮人으로보아서는 農校대신의高普가생기는셈이되여서 彼此의共同

利 益이아니냐』는것이當時그들의얼숭얼숭한主張이엿나한다 그리하야日鮮共學의美名下에群山中學은 만들어노코는朝鮮人은겨우一二人식밧게入學을식히지아니하야 이것이年來府民의宿怨이되여오든터에群友會에서蹶起하야關係各方面에陳情또抗議한結果昨年度부터十餘名식의朝鮮人學生을 收容케되엿다하니 이것만도다행이라할는지? 엇잿든興

梨 乞顆格이아닌가한다——群山에잇서 가장重要하고또緊急한問題는中等敎育機關의 設置와 勞働者敎養機關으로勞働學院가큰거이수준이이러나기를힘써빌어마지안는다(續)

朝鮮史 (㊂)

丹齋 申采浩

第七編 南方諸國對高句麗攻守同盟(八)

第三回 文字普及班動向

紫橋文字普及班
三班八學級에 난호고 十五名先生이 苦心

京城紫橋敎會……劉慶商

貴社의事業이日益發展함을心祝하며 여러同志의奮鬪를感謝하나이다

貴한紙面을通하야한두마듸報告라도할機會를주시니감사합니다

開城協成班消息
文字普及의標語미테 二百四十名의無產兒童

開城協成班……金申源

信川龍門普及班
날마다活氣잇는 百餘名의男女學生

信川……申鍾熙

太古人類生活畵報 (8)
사람의 猛獸襲擊

맥심、쏘리-키의 最近의文藝雜感 (完)

玄人 譯

그러나우리나라의批評家는『이데오로기-』的으로는가진武裝……

우리나라에는 數千의聰明家突擊隊員 拔擢者의男女가잇다

◇盛況일운紫橋文字普及班◇

一九三一年八月一四日

渡米船中日記 (三)

樹州

映畵、普通寫眞의 新整色寫眞術 (上)
世界서새로히利用하는방법

李創用

整色寫眞術이라함은 色彩感이밧는寫眞을 撮影하는方法이다

一、光線과感色性

波動의速度

Density

Wave Length (波長)

三代 (196)

廉想涉 作
安夕影 畵

海外쓰-뉴

부인

『바보』라고 버려두지말라
잘지도하면 훌륭한인물이된다
엇더케 출세를식힐가

다가튼사람의아들도래여나가지지고도 엇던사람은 천재(天才)를가지고잇서서일생을훌륭하게보내는 반면에 엇던사람은천치(天痴)다저능아이다하야세상사람들의 조소를 면치못할뿐아니라 일생을비참한 가운데 서지내는저능아(低能兒)가적지안습니다 그러면불행한 그저능아들그대로 버려둘것인가? 아닙니다 그의특장을따라잘가르키면천재를가진사람이나못지안흘수가잇게됩니다 그러면 엇더케엇더케가르칠것이냐하면 우선 거긔며한 한가지예를드러 말하겟습니다

『아메리카』에서는저능아들소사한결과 총인구아동중에서 약이퍼-센트의 천치아동을 발견하엿다합니다 그리하야공사(公私)로팔십여개소의 특별시설을하여노코

교육 을식힌다는데그의특징을조차서가르킨다고합니다 그교육과목으로는 감각보습(感覺補習) 학과음악(學科音樂)체조및수공(體操及手工)농업실습(農業實習)등을주로하야가르칩다고합니다 그런데 맨처음에는 촉각미해(觸覺味解)청각시각및근육(聽覺視覺及筋肉)등의발달을 촉진식힌다는바 그방법으로는 촉각보습이라면 행수와더운물에 손가락을 담그게하야하고더운감각의 지식을 가르치며청각에잇서서는각종악긔의『벨노드』의차이점을 분간하게하야그명칭을 가르켜주는것이며 미각(味覺)에잇서서는

사탕 과소금을맛보게하야달고찬것을구별케하며기타로는오색(五色)빗에대하야것트로엇든것을 가르켜서 모든사물을연상하게하여가지고 각각거리에대한 지능을발하 가르켜서훌륭한인재를 맨들기에 힘쓴다합니다

문명국이요 선진국이라는 칭호를밧고 자랑을 하는『아메리카』가튼데에서도 그와가튼 천치아동이 잇다는데한숨을며 우리조선에도 그러한저능아가 만흔것을조사하지안코도 잘알수가 잇슬것이아닌가요?

그러나 아메리카와가티 교육긔관이 특설이되지못한 조선에잇서 더욱히 남다른처지에잇는우리로서 천치아동을 가젓다면얼마나 불행한일입니까 그럼으로

저능 아들가진부모는그아이를 학교에보내여 학과를가르키는것보다 실지과목에 치중하야 여러가지를 가르켜보아서그가운데에서 제일나은 것을잡아서 특징을양성식히여주면 조흡니다 그특징을 리용하는것으로는 남자이면농세공(籠細工)이나목수(木手)나토수(土手)공이아니면 농업에종사하도록 전문적으로 가르칠것이며 녀자이라면 세탁편물(洗濯編物)등을 언제든지 보통사람보다 충실하게가르칠것입니다 엇재튼 보통아동들이면 교육을식힘에 여러가지과목중에서 잘모르는 그것을더욱 잘도록 가르키는것이지마는 저능아 즉미련한아이들은보통아이와는

정반 대로그배우는중에무엇이든지 좀나은것이면 그것을열심으로 가르키여 특정의재조를양성식히는것이큰생명이라고합니다

물론 생존경쟁이 격렬한이시대에잇서서 더욱히 취직난과생활난이 절정에 막다른지금에잇서저능아가 아니드라도 전문적기술이무엇보담 필요도 늣기엿시만은 더욱히저능일수록 각각그소장에딸하 기능을 발휘하도록하야 이세상에 출세하게하는것이 조흡니다 다시말하면미련하고천치이라하야 그저그대로 버려둘것이아니라 그의 특장대로가르켜서 남과가튼 생활을하게하라는말슴입니다

『뷰타페스트』의『풀─』 우리와 이야기로나 모든것으로나 멀리(떠러)저잇는『헝거리─』의 서울에잇는 시민을위하야 만드러논 수영장이니 개방하는 첫날의 굉장한 풍경입니다 요조그만것으로보드래도 얼마나 부러운일입니까

本報連載小說 『人間軌道』의 映畵化
火鳥同人會玄氏撮影部合同作
李明雨孫勇進李創用撮影으로

본보에 련재되여 독자제씨가애독하시든성북학인(城北學人)안석영(安夕影)씨의 영화소설인간괴도(人間軌道)를 현성완(玄聖完)일행이새로설치한촬영부에서 서화조영화동인회(火鳥映畵同人會)의후원으로 촬영하기로결정이되여그계획대로방금준비중이라는데 특히 조선영화계에서 탁월한수완을보혀준 촬영기사리명우(李明雨) 손용진(孫勇進)씨와근자에일본에건너가 새로운 촬영을연구하고돌아온 리창용(李創用)씨의합동촬영과리구영(李龜永)씨감독이며출연배우는 인선중이라함으로 후일에알게되려니와 구월초순부터 촬영에착수한다는바주긔영화계를장식할터이라더라

連鎖劇撮影한 玄聖完一行來京

극단형제좌 현성완일행(兄弟座玄聖完一行)이 새로히촬영부를두고 련쇄극(連鎖劇)을 촬영한다함은 임이보도한바이지만 그동안 관동팔경을 배경으로하고서 수만흔련쇄극을 촬영하엿다는데 구월경에 서울에와서흥행을하리라한다『사진은 동극단의 스타ー박숙자양』

短篇小說 健植의길 (13)
趙碧岩

(中略)

건식이는 이소리를듯고 황소가티 노하얏다 그러나엇시침착을이즈랴

『계획적(計劃的)의식적(意識的) 사회적(社會的)』

건식이는 또한번이렇케 중얼거려보앗다

건식이는 불이야불이야 삼덕이와 용이를다리고 삼덕이아버지와 리서방이 모여안즌데를차저갓다(中略)

저녁──초가을밤 달밝은밤에 웃동리 아랫동리 건너마을그외도 여러동리 대표들이뒤뜨나무밋흐로 모혓다 물론각동리대표라는이들은 그동리어른인것이다

그들은 지주에게 항거하는것그외모든것이 생소한것이엇다처음에는 건식이가 말하는것이 그럴듯이 듯고잇드니나종에는 겁이낫는지 이러타커렁타 말이업섯다

웃말구장이 이러서 몬저군청(郡廳)과면사무소(面事務所)를방문해서 진정(陳情)하자는것에모두가 찬성하얏다

건식이는 물론속으로 우섯지만은 벗적그에 반대하는용이삼덕이들 말이며 일의순서를발버갈것을 말하얏다

잇흔날 이근처마을 대표들은와──군청과 면사무소를방문하얏다 이동리대표로는삼덕이아버지와 건식이엇다건식이는안될줄 아럿지만은 진정이라니 진정서류를 쑤미여멧조목의 요구를만드럿다 그것은이러하엿다

전약(前約)

일、작년과가티병작으로할일

이、소작권(小作權)변경이업슬일

삼、구실은지주가전부부담할일

요구조목은이 세가지엇다

과연건식이가 우슨것과가티군청과 면사무소를 단여나온각동리대표들은 락망이엇다

(中略)

×

잇흔날각동리 대표들은 또다시모이엇다이번에는 야학집안에안저 심중히 의론하얏다드듸여 삼덕이아버지도 건식이의말을들어 죽겟살길을찻자는데에 찬의를표하얏다

그것은닐다른것이아니라 래일무러라도 지주의타작감을가다리지말고 벼를비여다가 타작을한후 지주에게줄것은 지주에게주도록 동리중그중조강한곳에갓다가 가티쌔어두자는것이엇다

그방법에는 여긔모인각동리대표가 타작감머리가되여서집마다 가서적당이감독하자는것이엇다 그리하야서 가티한군데갓다 싸어두엇든벼는 어케군청과 면사무소에 케출하든삼조건을지주가 들어주기까지는 내여주지도말고 허러트리지도말자고 결의하얏다

그이튼날부터 이동리저동리에서는 벼비고 타작하느라고법석이엇다 그리하야 한보름이지내자 누르렷든 들판은거무룩특한 흙으로변해버렷다

지주측에서는 설마저의들이도지로하라고 그러켓지하고모른체하얏다 이것이 이월을진행식히는데에는 도로혀이로운일이엇다

시월이지내고 서리가온시오렌지도 그들은도지를 아니가저갓다 이쎄부러지주측에서는사람을보내서 재촉을하얏스나그들은 도모지들은체만체이엇다 도로거절하얏다

지주측에서는 도모지모른것은아니지만『설마』에넘어진모양이엇다 그러나소작인이 반항한다고 들어줄지주도업섯다

지주측에서는 개인을차저가고롭너와서 개인교섭을하지만은 동리한가운데에가티 갓다가쌔하노흔 벼가래를 엇지허울수잇스랴

씨나리오 嘆息하는骸骨 (12)
……(撮影臺本) 『禁無斷撮影』 李圭煥

(全景) 어린아희들이永植과晶玉을싸고 빙빙돈다 두사람웃는다(溶暗)

(溶明) (字幕)몃칠이지난후…어느날저녁때……(溶暗)

(近寫) 門안에서내다보든英洙가 晶玉의뒤를딸아선다 英洙가딸아오는길을(一、三畵面으로移動)

(全景) 따라오든英洙가 어느中國料理집압까지와서 晶玉의엽헤와서선다

(大寫) 말하는英洙

(字幕)……晶玉이 暫間만조용히이약이할것이잇스니 저긔도먹을겸해서 여기暫間들어와주……

(近寫) 주저하는晶玉이를英洙가재촉한다

(字幕)……아니야 한五分동안만이약이하겟서 여기서는너무분주하닛가

(近寫)……英洙가晶玉의팔을쯔은나

(近寫) 이近處를오든 걸궁밧이가이光景을바라본다

(近寫) 英洙가주저주저하는晶玉을쯔을고 中國料理집으로들어간다

(大寫) 놀나는걸궁밧이의表情

(全景) 貧民窟을向하야 뛰여가는걸궁밧이(걸궁밧이가 뛰여가는길을 二三畵面으로移動)

(近寫) 料理집의男……멋집시의料理가노혀잇고 晶玉은머리를숙이고 한엽헤안자잇다 英洙가더러운우슴을먹음고晶玉의손목을 잡으랴고한다

(大寫) 晶玉의손목을 잡으랴는英洙의손 晶玉의손이 英洙의손을뿌리친다

(大寫) 분나고무서워하는晶玉의얼굴

(大寫) [illegible]와가티 달녀드는英洙의얼굴

(全景) 英洙가달녀들어 晶玉을쓰안는다 晶玉은것먹든힘을다하야 反抗한다 뛰여오는걸궁밧이의下半身

(近寫) 貧民窟의近處……永植이가는것이보인다『걸궁바리』가뛰여가며불는다

(字幕)永植이──(移動으로)

(中寫)……永植이뒤를돌아본다

(近寫)……『걸궁밧이』가 永植의압헤와서 헐덕어리며이약이한다

(字幕)……永植이 큰일낫네 只今金英洙가 晶玉이를쯔을고 鍾路男네料理집으로들어갓스니 어서가보게

(大寫) 놀나는永植의表情

(全景)……달녀가는永植 그리고따라가는 걸궁바리

(近寫)……달려가는永植(一、四畵面으로移動)

(近寫)……料理집男……晶玉의옷은찌저지고 氣運은업서간다 英洙는덤빈다

(大寫) 달리는 永植

(大寫) 머리가헛트러지고 피를흘니는晶玉의얼굴 (觀客을向한移動으로)

(大寫)……[illegible]와가티 덤비는英洙의얼골 (觀客을向한移動으로)

라듸오 八月十九日

午前 一〇時〇分 氣象槪況 各地天氣實況 一〇時四五分料理『초만드는법(三)』 日用品時勢 一一時〇分 中等學校優勝野球準決勝速報 正午時報 뉴ー쓰

午後一時〇分前記野球中繼 三時四五分 뉴ー쓰 公示事項 山口高商對京電野球(京城그라운드) 六時三〇分講演 七時〇分뉴ー쓰 公示事項、職業紹介事項 七時三〇分朝鮮의面影 九時〇分 連續講談(A) 九時三五分 氣象槪況 各地天氣實況 時報 九時四五分朝鮮音律『靈山會像』玄琴趙彛淳 短簫趙東奭 提琴金相淳 奚琴閔完植

崔承喜女史第四回 新作舞踊公演
九月上旬市內團成社에서
本社學藝部後援으로

조선의 단한사람의무용가인 최승희(崔承喜)녀사는그동안여러가지의력작(力作)무용을발표하야 내외인이 주목을끌고잇는바본사학예부후원으로 오는구월초순에 시내단성사(團成社)에서제사회신작무용(新作舞踊)을발표하게되여방금연습(練習)의계절임도불구하고서 주야로맹렬한 준비를하고잇는데 특히이번공연에는 조선의정서를 표현하기로하고자 고심에 고심을하야 창작한것만을발표하리라 함으로 상세는추후에 발표하려니와 금추무용계의 한큰수확이되리라하야일반의긔대가크다한다

不死鳥 (4)
沈熏作 安碩柱畵

음악회 (4)

계훈이와 독일녀자『쭈리아』는 그길로 바로 공회당에서길건너인 조선호텔로 빠저나갓다 계훈이는 귀국하면서 한달동안이나 호텔에 류숙하고잇다 이층 남향방이라 방갑만 하로에 십이원이다 양식이아니면 먹지못하니까 아츰에 일원오십전 점심에 이원저녁에 삼원오십전 합하면하로에 식가만 칠원이오 심심해서 녀자혼자는 먹을자미가업서하니까 계훈이까지 두사람에 십사원이다 방세까지얼른면 하로의 비용이 먹고자는데만 이십八원이다 그밖게도 뽀이에게 이할이상의『팁』을 주어야하고 한두차례 택씨갑이나가고 손이 오면 접대안할수업스니 줄잡어도 하로에 다른비용업시 삼십여원은 가져야한다 三三은九한달에 구백원이니 백원이 업는천원이다 제아모리 조선서몃재안가는 이든마 백만장자의외아들인 계훈이라도 언제까지나 이 벗산『호텔』에서 양코백이들과 억개를 겨누어가며 생활을 계속할는지 의문이다

권라도 아전이든 그의아버지가 두번 맛날수업는 조흔(?)긔회에 썩 한밤울흘리지안코 갈퀴질을 해드린재산이지만도 새는 동이에 물퍼붓듯할수는업다 계훈의 아버지김(?)(경술년전해에 삼백석직이 명을 밧치고 산 벼슬이지만……)는 계훈이가 양녀들다리고 온다는 소식을듯고펄펄뛰엇다 인아친척간의 시비도 청이 가시려니와 첫재십여년이나 거느리고잇든 죄업는 며느리──더구나 종부의처지문케도 애단 거북한노릇이엇다 그러나 소청을 두텟식이나 갈어드려도 씨를밧지 못하니 맛아들검 막내아들인 계훈이의 비위도 뎃들리기는 어려웟다 설사 그가반대를하드래도 그의 안해인녀방마님이 남류달른 자애로무슨 변통이든지해서 며를텡시행을하는데는 자긔로서도 월위히 참견할수가업겟다

그뿐아니라 세상에서 자긔아들을 천재니 세계적음악가니하고 핑싱히 떠밧드는데는미상불 억개가 읏쓱해질때가업는것이 아니엇다 이현부모(以顯父母)가 첫재가는 효도인 까닭이다 그래서 새로양실한채를 지어줄때까지 하로에 사오십원씩을 꼬박꼬박물어주는것이다

호텔도 몰아온 그들은 피치에 말이업섯나 바이올린을이 연주중에 쓰러젓기로서니 한바탕 영어복습을 하는데 …스트란』이다

『대단히 피곤하시겟습니다』

『우리 조선서는 처음되는훌륭한 음악회엿습니다』

『미리 주의를 시켯것만 상식업는 사진반이 큰 실수를해서 매우 놀라 섯겟지요?』

련접허 독일말도 조선말로사과도하고 현기증이 나도록치켜올리는바람에 계훈이도눈살을 펴고 사교에 능난한『쭈리아』는 잇는대로의 애교를털어 손들을 컴머한다 더욱이『바이올린』교사노릇을 한다는『스투핀』은 동포인 녀자압헤더욱 은근한 태도를짓는다

포도주잔이 몃번이나 부듸ㅅ고 도도리만한잔에 오륙십전이나밧는 양주가 기우리는대로말랏나

백림(伯林)서 지내든일이며『하이델베르히』의 『토로만릭』한학생생활이며 이야기에꼿치피어서 독일나라한모퉁이가떠들려 조선으로 이사를온듯하다

『자ー 이것은 『문헨』서 수입한 맥주입니다』

그중에 한사람은 손소 마개를 쌔아『쭈리아』에게 권하얏다 『쭈리아』는(김이 다 빠저서 무슨맛인지 모르겟다) 하면서도 류리곱보에 철철넘치는 고향의들을 놉히들어한숨에 마셧다여러사람은 일제히

『색다보ー』

를 불럿나

그때엿다 문밧게서 왁자짓걸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압홀 가누지못하는주정뱅이 사오인이나 작당을하야의자를발길로차며 들어섯다

계훈이가 그닥지 흥분이된까닭을『쭈리아』는 도모지 리해할수가업섯다 그러타고 다시 물어보기에는 자존심이허락지안햇다 계훈에게는 장가는 아해와 아들까지 새파랏케 눈을뜨고잇는 사실을 절대비밀에붓처 쉬ー쉬ー하는터이라 더구나 말을 통치못하는『쭈리아』는 감쪽가티 속고잇슬수박에업섯다

계훈이는 선도 벗지안코침대우에 머리를 집고 쓸어저잇는판에 방문밧게서 떠들석하는소리가 들렷나 그날밤의호원자들이 (대개는 독일류학생들과 음악가족인데 그중에는『스투핀』이라는 쎄이올린교사누뭇하는 독일사람도 섯겻다 그쏘이의 안내로 몰려들엇다 그들은 말업시 두사람을 자동차에 담어가지고 백화원으로몰렷나 백화원은 하로 한세라도 양컵시를 할시안호번소회와 영양상중대한이상이잇진다는 미국출신의 신사들이컴심때면 모여들어서 왜겹왜결